

역사와 소설의 경계에 대한 고찰

- <荊軻傳>과 <燕丹子>를 중심으로*

李時燦**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역사 텍스트의 글쓰기 전략
 - III. 소설 텍스트의 글쓰기 전략
 - IV. 역사와 소설의 경계 넘나들기
 - 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역사와 소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진실’과 ‘허구’라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와 소설의 텍스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것은 바로 역사책 속에 기술되어 있는 ‘진실’이라는 것이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사상에 의해 항상 틀이 생길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기술하더라도 언어의 사용 방식에 따라 소위 ‘역사적 진실’이란 것은 충분히 비틀어지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행된 역사 서술은 때로는 이른바 허구의 문학 장르라고 규정짓는 소설보다 더 진실과 괴리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 좋은 예로 작금의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기술에 대한 분쟁을 들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역사교과서 가운데 현대사 기술 부분에 대해서 좌편향, 우편향 논쟁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나관중에 의해 집대성된

* 이 논문은 2013-2015학년도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三國演義》는 이미 역사적 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허구의 내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三國演義》를 읽은 독자들에게는 어쩌면 역사 그 자체보다 더 큰 ‘소설화된 역사’를 각인시키면서 진화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과연 허구적 상상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진실의 기술이란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또 ‘허구라는 외피를 입은 소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사라고 하는 내피에 대해 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상반된 두 개의 근원적인 질문이야말로 바로 필자가 본 논문을 쓰게 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고민의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과 ‘소설적 허구’라는 실체를 중국 고대 역사소설의 시발점으로 손꼽을 수 있는 〈燕丹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戰國時代に 秦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도망친 燕나라 太子 丹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문학사에서 소설로 분류된 작자 미상의 〈燕丹子〉보다는 사마천의 《史記》에 보이는 荊軻의 傳記로 일반인에게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이보다 조금 앞선 《戰國策》이나 宋代의 《資治通鑑》과 《通鑑節要》와 같은 史書 계열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작자 미상인 〈燕丹子〉를 표제로 하는 기록은 《隋書·經籍志》로부터 《四庫全書總目》에 이르기까지 ‘小說家類’로 분류되어 역대의 문헌목록에 계속 보인다. 본고에서는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는 〈荊軻傳〉과 소설로 분류되는 〈燕丹子〉를 두 개의 주된 텍스트로 설정하고, 먼저 역사적 기록 속에 담겨진 진실성 이면의 허구성과 글쓰기 전략을 분석한 후에 소설 속에 담겨진 내용은 역사적 기록과 비교하여 과연 어떤 차별성과 의미를 갖는지 분석한 다음, 역사와 소설의 경계에 대한 분석을 사상적 경향과 이야기의 플롯(plot)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구할 것이다.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논의할 사항은 역사서의 기술 속에 담긴 진실성이라는 것과 또 그 이면에 깔린 글쓰기 전략과 허구성의 문제이다. 사마천의 《史記》는 중국 역사서의 서막이기도 하면서 중국 서사문학의 뿌리로 소급될 수 있는 위대한 저작이다. 그 가운데 ‘列傳’에 등장하는 역사 속 실존 인물들에 관한 기록은 ‘傳記文學’이라는 장르의 典範으로 후세에 중국 고대 소설가들의 글쓰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荊軻傳〉은 ‘列傳’ 가운데서도 백미로 꼽힐 정도로 기술된 내용이 흥미진진하며 소설적 서사성이 강하다. 사마천은 끝부분에서 이 기록이 출처가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자

는 II장에서 역사 텍스트인 〈荊軻傳〉의 글쓰기 전략을 짚어 보고, 특히 허구성이 가미됨으로써 소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대목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위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소설 텍스트인 〈燕丹子〉 속에 담긴 진실성과 허구성을 ‘소설적 가능성’이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적 가능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처음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사건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건조하다고 생각될 때에, 저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품으면서 그것을 실험해 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이 소설의 발생에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소설이라는 장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전파력과 생명력이 크고 길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글쓰기라는 것이다. III장에서는 소설 〈燕丹子〉에서 역사텍스트와 구별되는 소설적 장치와 요소들을 분리하고 분석한 후에 그것이 역사기술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성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이상의 분석을 통해 IV장에서는 漢代에 시도된 역사와 소설의 경계 넘나들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왕에 어떤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설이라는 형태로 또 다른 글쓰기가 시도된 까닭은 무엇이며, 소설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필자는 漢代라는 특정 시기에 나타난 글쓰기에서 역사와 소설이 서로 장점을 주고받으며 그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을 서사의 중요한 요소인 ‘플롯’(plot)으로 보고, 그 핵심적인 특징을 〈荊軻傳〉과 〈燕丹子〉의 텍스트를 비교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역사텍스트의 글쓰기 전략

최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속에는 분명 액면 그대로의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자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사실을 온전하게 문자로 기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기록하는 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사상이나 관점,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시대의 역사가라 할지라도 같은 사

건을 두고 A역사가와 B역사가의 기술은 사실 전달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게 묘사되고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체로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조류나 도덕관념의 특성상 기술되는 사건에 대한 평가의 지향점은 충분히 동질성을 지닐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역사기술은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는 ‘本色’을 텍스트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게 마련이다.

사마천이 역사가로서 채택한 첫 번째 글쓰기 전략은 바로 ‘述而不作’의 원칙이다. 주지하다시피 사마천은 漢代를 대표하는 ‘懷才不遇’했던 인물로서 그가 저술한 《史記》에는 그 명성과는 별개로 그의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주관적 관념과 평가가 곳곳에 삽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그의 저술이 ‘述而不作’이라고 하는 孔子 이래의 엄숙한 글쓰기에 충실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刺客列傳〉의 말미에서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太史公은 말한다. “세상에 전해지는 荊軻에 관한 이야기 중 태자 丹의 운명을 일컬어 ‘하늘에서 곡식이 내리고 말 머리에 뿔이 돋아났다.’라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또 荊軻가 秦나라 왕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본래 公孫季功과 董仲舒는 夏無且와 교분이 있어 이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太史公曰: “世言荊軻, 其称太子丹之命, 天雨粟, 馬生角也, 太過. 又言荊軻傷秦王, 皆非也. 始公孫季功、董生与夏无且游, 具知其事, 爲余道之如是.”)¹⁾

사마천은 당시 형가와 관련되어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역사가의 입장에서 태자 丹과 관련된 ‘馬生角’과 같은 이야기들이나 荊軻가 진나라 왕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대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 이야기를 사마천에게 들려준 公孫季功과 董仲舒가 바로 이 사건에 등장하는 夏無且(진시황의 侍醫)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미에 애써 강조하고 있다. 사마천의 이러한 언급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자신의 저술이 당시 ‘大道’와는 다른 ‘小說’과 차별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馬生角’과 같은 허구의 기록은 물론이고, 秦王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도 과장된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가로서 사실

1) 瀧川資言 著, 《史記會注考證》卷86 〈刺客列傳〉(臺灣, 天工書局, 1993년), 1032-1033쪽.

과 허구를 엄격하게 선을 그어 구분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번째 글쓰기 전략은 허구적 사실을 부정했지만 이 또한 당시에 떠도는 이야기로써 기록의 형태로 남겼다는 점이다. 즉 사마천이 〈荊軻傳〉 말미에 언급한 ‘馬生角’과 관련한 이야기는 허구라고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의 소설 〈燕丹子〉 첫머리에 소개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 成語의 형태로 인구에 회자되는 등 아이러니하게도 ‘燕丹子’ 이야기를 전파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마천은 두 가지 글쓰기 전략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허구나 과장된 사실을 배제한다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역사 텍스트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고, 둘째는 비록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馬生角’의 줄거리를 본문 속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끝부분에 언급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후세에 正史가 아닌 소설이나 成語의 형태로 유전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소설가들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창작할 때 당연히 역사책을 ‘所依經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들은 역사서에서 최대한 소설적 흥미를 더해 줄 소재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마천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끝부분에 허구라고 언급한 ‘馬生角’ 이야기는 당연히 소설가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소재들이 된 것이다. 소설은 역사보다 사실의 전달 면에서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역사보다 이야기의 생명력이 길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史記》에 나오는 다른 어떤 기록보다도 〈荊軻傳〉이 오늘날까지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가 ‘사실’에 충실하다는 역사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설적 요소인 ‘허구적 내용이 숨쉴 좋게 안배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사마천이 〈荊軻傳〉에서 글쓰기 전략으로 선택한 세 번째 시도는 바로 이야기의 시작을 「荊軻는 衛나라 사람이다.(荊軻者, 衛人也.)」라고 하면서 중심인물을 燕나라太子인 ‘丹’이 아니라 ‘荊軻’로 삼았다는 점이다. 〈荊軻傳〉은 시작 부분에 약 사백 여자의 서술을 통해 荊軻의 약력과 燕나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荊軻는 衛나라 사람이다. 그 조상은 齊나라 사람인데 뒤에 荊軻가 衛나라로 옮

겨가자 衛나라 사람들은 그를 慶卿이라고 부르고, 燕나라로 옮겨가자 燕나라 사람들은 그를 荊卿이라고 불렀다. 荊卿은 책읽기와 격투기와 검술을 좋아하였다. 그는 그 재능으로 衛나라 元君에게 유세하였으나 衛나라 元君은 그를 쓰지 않았다. 그 뒤 秦나라가 魏나라를 쳐서 東郡을 두고 衛나라 元君의 일족을 野王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荊軻는 일찍이 떠돌아다닐 때 榆次를 지나면서 蓋聶과 검술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蓋聶이 성을 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荊軻가 나가 버리자, 어떤 사람이 荊卿을 다시 부르라고 하였다. 蓋聶이 말했다. “전에 나는 그와 함께 검술을 논하다가 그의 생각이 탐탁지 않아서 노려본 적이 있소. 속는 셈치고 한번 가보시면 그는 반드시 떠났을 거요. 감히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그의 주인집에 가 보게 하였는데, 荊卿은 이미 수레를 몰아 유차를 떠난 뒤였다. 그 사람이 돌아와 사실대로 얘기하자 蓋聶은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떠났을 것이요. 내가 예전에 눈을 부릅떠 화를 냈으니깐.”

荊軻가 邯鄲에서 돌아다닐 때 魯句踐이란 자가 荊軻와 장기를 두었는데, 장기판의 승부수를 놓고 다투게 되었다. 魯句踐이 성을 내고 꾸짖자 荊軻는 아무 말 없이 달아나 결국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 뒤 荊軻는 燕나라로 가서, 燕나라의 개 잡는 백정과 筑을 잘 타는 高漸離라는 이와 친하게 지냈다. 술을 좋아하는 荊軻는 날마다 개 백정과 高漸離와 어울려 燕나라 시장 바닥에서 술을 마셨다.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高漸離가 축을 타고 荊軻는 그 소리에 맞추어 시장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즐겼다. 그러다가 서로 울기도 하였는데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유분방했다. 荊軻는 비록 술꾼들과 사귀어 놀기는 했지만 그 사람됨이 신중하고 침착하며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제후국을 떠돌면서 한결 같이 그곳의 현인, 호걸, 나이 많고 덕을 갖춘 사람들과 사귀었다. 그가 燕나라로 가자 燕나라의 숨어 사는 선비 田光 선생도 그를 잘 대접하였다. 田光은 荊軻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荊軻者, 衛人也. 其先乃齊人, 徙於衛, 衛人謂之慶卿. 而之燕, 燕人謂之荊卿. 荊卿好讀書擊劍, 以術說衛元君, 衛元君不用. 其後秦伐魏, 置東郡, 徙衛元君之支屬於野王. 荊軻嘗游過榆次, 與蓋聶論劍, 蓋聶怒而目之. 荊軻出, 人或言復召荊卿. 蓋聶曰: “曩者吾與論劍有不稱者, 吾目之; 試往, 是宜去, 不敢留.” 使使往之主人, 荊卿則已駕而去榆次矣. 使者還報, 蓋聶曰: “固去也, 吾曩者目攝之!” 荊軻游於邯鄲, 魯句踐與荊軻博, 爭道, 魯句踐怒而叱之, 荊軻嘿而逃去, 遂不復會. 荊軻既至燕, 愛燕之狗屠及善擊筑者高漸離. 荊軻嗜酒, 日與狗屠及高漸離飲於燕市, 酒酣以往, 高漸離擊筑, 荊軻和而歌於市中, 相樂也, 已而相泣, 旁若無人者. 荊軻雖游於酒人乎, 然其爲人沈深好書; 其所游諸侯, 盡與其賢豪長者相結. 其之燕, 燕之處士田光先生亦善待之, 知其非庸人也.)²⁾

사마천은 역사가의 입장에서 荊軻가 비록 지배층은 아니지만 그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荊軻 개인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전무후무한데 사마천보다 조금 앞서 劉向이 저술한 《戰國策》에는 그 시작이 단순하게 「燕나라 太子 丹이 진나라에 인질이 되었다가 도망쳐 돌아왔다.(燕太子丹質於秦,亡歸.)」로 되어 있어 태자 ‘丹’을 이야기의 중심인물로 삼은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같은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있는 인물은 燕나라 태자 ‘丹’이 아닌 ‘荊軻’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마천의 의도와는 별개로 사건의 전개가 태자 ‘丹’이 아닌 ‘荊軻’에 맞추어졌다는 점은 이미 漢代에 이르면 역사 서사가 일대 혁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漢代의 역사서에서 다루는 중심인물이 지배층에서 피지배층으로 확대된 것은 서사의 외연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마천이 이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역사서에 포함될 소재는 그만큼 더 풍부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고대의 소설가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으로 소설장르가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심인물을 태자 ‘丹’에서 ‘荊軻’로 바꾼 사마천의 기록은 후대에 역사와 소설이라는 두 가지 서사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신화나 영웅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문학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서사문학의 원천으로 작동했으며, 그 속에는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과 형상이 다양한 서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골고루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대 중국을 위시한 동양에서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피지배층은 正史 속에 흡수되지 못하다가 사마천의 《史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겠으나 사마천에 국한해서 바라보자면 중국의 역사서에서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이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는 바로 사마천 개인이 겪은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사마천의 〈太史公自序〉를 보면 사마천 부자의 특이한 체험, 곧, 소속되어 있는 세계로부터 자기를 부정당하였다고 하는 특이한 체험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학자인 가와이 코오조오(川合康三)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한 적이 있다.

2) 같은 책, 《史記會注考證》, 1028쪽.

서구의 경우 한 인간의 역사에서 과거의 자신과는 상이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전 집필의 계기라고 한다면, 중국의 자전은 인간 집단 속에서 대중과 상이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

〈荊軻傳〉은 비록 사마천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중심인물이 왕족이 아닌 荊軻라고 하는 일반인에게 맞추어져 있고, 결말 역시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다. 그리고 사마천은 이를 통해 ‘發憤’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荊軻라는 인물이 겪은 비극적 경험이 사마천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마천은 ‘列傳’이라는 형식을 통해 왕이나 귀족이 아닌 荊軻와 같은 일반 인물 또한 서사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지배층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지배층에 대한 ‘發憤’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지배층인 일반 인물을 영웅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한 개인에 집중하는 ‘傳’이라는 형식을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 발전하고 진화하는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 가운데 특히 〈荊軻傳〉은 역사와 소설의 경계에 선 상징적인 작품이자 역사 텍스트가 지배층의 전유물에서 일반으로 전파될 수 있는 모범적인 글쓰기를 실천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소설이 아닌 《史記》와 같은 역사서에서 피지배층인 荊軻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소설을 포함한 다른 서사문학에서도 역사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은 중국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Ⅲ. 소설 텍스트의 글쓰기 전략

Ⅲ장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소재로 한 소설 〈燕丹子〉의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史記》보다 조금 앞선 《戰國策》을 비롯하여 후대의 역사서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의 중심인물로 서두에 지배계층이라 할 수 있는 燕나라 태자 丹을 내세웠다.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시기의

3) 가와이 코오조오 지음, 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서울, 소명출판, 2002년), 35쪽.

《史記》에서 중심인물을 피지배 계층인 荊軻로 바꾸는 획기적인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텍스트인 〈燕丹子〉에서는 여전히 도입 부분에 荊軻가 아닌 燕나라 태자 丹을 중심인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작자 미상의 소설 〈燕丹子〉가 보다 실질적이면서 입체적 주인공인 荊軻를 도입 부분에 내세우지 않고 태자 丹을 설정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정통성을 지닌 역사서와의 경쟁성 내지는 동질성을 호소하기 위한 설정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더불어 저자의 인식이 아직 사마천의 개인적 경험과 궤를 같이 하지 못했기에 특별한 고민 없이 태자 丹을 언급하며 서두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시기에 《史記》에서 荊軻를 중심인물로 설정한 획기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소설 〈燕丹子〉 작자의 관념 속에는 여전히 당시의 지배적 글쓰기인 역사서의 서술 체계를 따른 관성적인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면 타당할 것이다.

소설로 분류되는 〈燕丹子〉가 《史記》의 〈荊軻傳〉과는 달리 시작 부분을 「燕太子丹質於秦」이라고 시작을 하여 《戰國策》 계통의 역사 서술을 답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는 내용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당시 문인 독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서술부터는 다른 역사서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다양한 소설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燕丹子〉가 허구의 외피를 입은 ‘역사소설’로서의 기본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글쓰기 전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당시 문학을 소비하는 독서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설이 ‘街談巷語’나 ‘小道’ 정도로 치부되는 문학 환경 속에서 ‘傳’의 형식을 빌린 작품의 주인공이 하층민인 ‘荊軻’로 설정되어 작품이 시작될 경우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독서층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燕丹子〉의 저자는 우선 도입 부분의 중심인물로 왕족 신분인 태자 丹을 삼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허구의 외피를 입은 역사소설로서 소설적 글쓰기의 본격적인 전략은 바로 태자 丹이 연나라로 도망치게 된 성공적 이유를 ‘馬生角’이라는 허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소설 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역사서가 갖지 못하는 허구적이면서도 신비한 상상력의 세계로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만의 이러한 허구적 내용은 당연히 《戰國策》이나 후대의 역사서인 《資治通鑑》, 《通鑑節要》 등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

지 않고, 다만 《史記》의 끝부분에 ‘馬生角’ 따위의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로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만 살짝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燕丹子〉에서 가장 소설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는 ‘馬生角’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燕나라 태자 丹이 秦나라에 인질로 잡혔는데 秦王이 그를 무례하게 대우하자 마음이 불편하여 돌아가기를 구하였으나 秦王이 듣지 않고 터무니없이 말하기를 “까마귀 머리를 희게 만들고 말에 뿔이 나게 한다면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丹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니 까마귀 머리가 곧 희어지고 말에 뿔이 났다. 秦王은 부득이하게 그를 보내 주었다. 기계를 장치한 다리를 만들어 丹을 빠뜨리려고 하였는데 丹이 거기를 지났지만 장치가 발동하지 않았다. 밤에 관문에 이르렀는데 관문이 열리지 않자 丹이 닭 울음소리를 내니 못 닭들이 모두 울어 마침내 도망쳐 돌아올 수 있었다. (燕太子丹質於秦, 秦王遇之無禮, 不得意, 欲求歸. 秦王不聽, 謬言曰令烏白頭、馬生角, 乃可許耳. 丹仰天歎, 烏卽白頭, 馬生角. 秦王不得已而遣之, 爲機發之橋, 欲陷丹. 丹過之, 橋爲不發. 夜到關, 關門未開. 丹爲雞鳴, 衆雞皆鳴, 遂得逃歸.)⁴⁾

과장과 허구는 소설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때로 이러한 내용이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흥미에 이끌리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허황되고 과장된 기술이 이 작품 속에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대로 갈수록 생명력을 가지면서 진화를 거듭한다는 점이다.⁵⁾ 역사가로서 사마천이 남긴 기록 또한 예외일 수는 없어서 그는 비록 허구적 내용을 부정했지만 〈荊軻傳〉의 끝부분에 짧게 언급을 했고, 이는 후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당시 소문으로 떠돌면서 소설 〈燕丹子〉와 사마천의 〈荊軻傳〉에 동시에 기록된 허구적 내용은 후대의 소설은 물론이고, 역으로 역사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소설 〈燕丹子〉와 사마천의 〈荊軻傳〉의 말미에 언급된 ‘馬角生’ 내용과 관련하여 후대에 注를 단 사람들은 여전히 사실의 이면에 비친 허구적 담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唐代 司馬貞은 《史記索隱》의 ‘燕丹子’ 기

4) 王天海 譯注, 《燕丹子全譯》(중국, 貴州人民出版社, 1997년), 203쪽.

5) 중국소설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다시 쓰기(重寫)라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어느 한 시대에 창작된 작품은 후대로 가면 소설이나 희곡 속에서 재창작되곤 한다. 가령 중국소설사에서 唐代에 창작된 수많은 작품들은 元明 시기에 희곡과 소설로 거듭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은 반복 또는 첨가가 이루어졌다.

록에서 「丹求歸，秦王曰：‘烏頭白，馬生角，乃許耳。’丹乃仰天歎，烏頭即白，馬亦生角。」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⁶⁾ 이처럼 허구나 과장된 내용이 후대에도 계속 주된 이슈로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통시적으로 긴 생명력을 지니려면 사실에 해당하는 ‘팩트’(fact) 이외에 어떤 허구나 과장의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로 소설의 뿌리로 언급되는 신화나 전설이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의 여부 자체보다는 바로 어떤 사건을 둘러싼 허구와 과장이 사람들의 뇌리에 심리학적으로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⁷⁾ 사마천은 비록 역사가로 불리긴 하지만 그는 〈荊軻傳〉에서 이러한 소설적 요소를 언급함으로써 이 작품은 《史記》에 수록된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소설적 글쓰기의 전략으로 만들어진 허구와 과장의 이야기가 〈荊軻傳〉과 〈燕丹子〉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후세에 확산되었는지 그 원문을 도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6) 같은 책, 《史記會注考證》, 1033쪽.

7) 성경책 속에 그려진 내용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기록은 사실의 여부를 떠나 인류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 다른 예로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유리구두’와 관련된 것으로, 이 ‘유리구두’를 둘러싸고 허구와 과장으로 점철된 기이한 현상들이 신데렐라를 돕는다는 내용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유하고 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1630년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문자 기록으로 이루어진 이래, 《고양이 신데렐라》라는 이야기가 이탈리아에서 소설화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전승되어온 민담을 소설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실에 있던 샤를 페로라는 시인이 1695년에 《페로 동화집》을 간행했는데, 이것은 당시 프랑스 민간에서 전승되던 이야기를 루이왕의 궁정에 어울리도록 고상한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후에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신데렐라》는 바로 샤를 페로의 동화집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신데렐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과거부터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현재 채록되어 있는 것만도 450종이 넘는다. 중국에서는 唐代의 《西陽雜俎》에 〈葉限〉이란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고, 한국에서는 〈콩쥐팍쥐〉가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자 미상	〈燕丹子〉	燕太子丹質於秦, 秦王遇之無禮, 不得意, 欲求歸. 秦王不聽, 謬言曰令烏白頭、馬生角, 乃可許耳. 丹仰天歎, 烏即白頭, 馬生角. 秦王不得已而遣之, 爲機發之橋, 欲陷丹. 丹過之, 橋爲不發. 夜到關, 關門未開. 丹爲雞鳴, 衆雞皆鳴, 遂得逃歸.
西漢 司馬遷	《史記》 卷八十六 〈刺客列傳〉	太史公曰: “世言荊軻, 其稱太子丹之命, 天雨粟, 馬生角也, 太過. 又言荊軻傷秦王, 皆非也. 始公孫季功, 董生與夏無且游, 具知其事, 爲余道之如是.”
東漢 王充	《論衡》卷五 〈感虛〉	傳書言: “燕太子丹朝於秦, 不得去, 從秦王求歸. 秦王執留之, 與之誓曰: 使日再中, 天雨粟, 令烏白頭, 馬生角, 廚門木象生肉足, 乃得歸. 當此之時, 天地祐之, 日爲再中, 天雨粟, 烏白頭, 馬生角, 廚門木象生肉足. 秦王以爲聖, 乃歸之.” ……太史公書漢世實事之人, 而云虛言, 近非實也.
東漢 應劭	《風俗通義》 〈正失篇〉	燕太子丹天爲雨粟, 烏頭白, 馬生角, 廚人生害足, 井上株木跳度瀆.
西晉 張華	《博物志》卷八 〈史補〉	燕太子丹質於秦, 秦王遇之無禮, 不得意, 思欲歸, 請於秦王, 王不聽, 謬言曰: “令烏頭白, 馬生角, 乃可.” 丹仰而歎. 烏即頭白, 俯而嗟, 馬生角, 秦王不得已而遣之. 爲機法之橋, 欲陷丹, 丹驅馳過之, 而橋不發. 遁到關, 關門不開. 丹爲鷄鳴, 於是衆鷄悉鳴, 遂歸.
唐 司馬貞	《史記索隱》	丹求歸, 秦王曰: “烏頭白, 馬生角, 乃許耳.” 丹乃仰天嘆, 烏頭即白, 馬亦生角.
唐 李商隱	〈人欲〉	秦中已久烏頭白, 却是君王未備知.
明 馮夢龍	《東周列國志》 第一百六回	燕王依其計, 遣使至秦. 秦王政曰: “燕王不死, 太子未可歸也. 欲歸太子, 除是烏頭白, 馬生角, 方可.”

우선 東漢의 王充은 사마천이 기술한 내용을 인용한 후, 다시 사마천은 漢代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虛言’을 했다고 하면서 그 기술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王充은 어디까지나 實事求是의 정신에 입각해서 ‘馬生角’과 관련된 기록을 허구로 단정했지만, 오히려 「주방문에 있는 木像에서 다리가 생겨났다(廚門木象生肉足)」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사마천이 남긴 허구적 내용이 오히려 세인의 관심을 끌며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東漢의 應劭는 《風俗通義》〈正失篇〉에서 다섯 가지 허구의 사실을 전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물가의 나무가 도랑을 뛰어 넘었다.(井上株木跳度瀆)」라는 새로운 허구적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여기서는 荊軻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세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설적 허구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班固의 《漢書藝文志》諸子略 雜家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漢書藝文志》에는 《荊軻論》五篇이라는 목록이 있는데, 바로 그 아래에는 「荊軻는 燕나라를 위해 秦王을 암살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司馬相如 등이 그것을 논했다.(軻爲燕刺秦王, 不成而死, 司馬相如等論之.)」라고 주를 달아 놓았다.⁸⁾ 《荊軻論》五篇에 기록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論衡》에 기록된 「廚門木象生肉足」라든가 《風俗通義》에 추가된 「井上株木跳度瀆」이란 허구적 내용은 아마도 당시에 전해지던 《荊軻論》五篇의 내용 가운데서 인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로 볼 때, '馬生角'과 관련된 다섯 가지의 허구적 기록은 사마천 이후 끊임없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가운데 司馬相如와 같은 이들이 荊軻의 일을 계속 전파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소설적 요소를 지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張華의 《博物志》에 나오는 관련 기록 역시 荊軻의 일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태자 丹이 秦王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丹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닭울음소리를 흉내냄으로써 무사히 관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내용은 소설 〈燕丹子〉의 것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허구와 과장이 가미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장치들은 바로 소설적 글쓰기의 대표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흔히 好事家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축매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고대의 소설가들이 이러한 사건을 소설로 재구성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司馬遷이 《史記》에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馬生角

8) 班固 撰, 《漢書》(중국, 中華書局, 1997년), 447쪽.

관련 이야기들은 소설 〈燕丹子〉를 통해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진화를 거듭하였고, 唐代에 이르러 司馬貞의 《史記索隱》과 李商隱의 〈人欲〉이라는 시에서도 인용이 될 정도로 그 사실의 여부와는 별개로 후대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역사가가 남긴 기록은 그 어떤 기록보다도 그 권위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로 전해질 때에는 허구와 과장이라는 요소가 있어야만 시공을 초월하여 강한 전파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소설 〈燕丹子〉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허구와 과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선택했고, 이러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역사서의 글쓰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史記》에 실린 〈荊軻傳〉이 같은 책에 수록된 다른 역사적 기록보다 오늘날까지도 일반에게 더 잘 알려져 있게 된 한 요인은 바로 역사적 사실 자체보다 馬生角과 관련된 허구적 요소를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소설 〈燕丹子〉는 물론이고 심지어 역사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과장이나 허구와 같은 소설적 요소들이 지니는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燕丹子〉나 〈荊軻傳〉에 과장이나 허구가 없이 단순히 사실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 이야기의 생명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史記》에는 무수히 많은 ‘傳’이 있지만 〈荊軻傳〉이 특히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이야기로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바로 소설적 요소인 허구적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대 풍몽룡의 소설 《東周列國志》에서는 ‘馬生角’과 관련된 것을 언급하면서 소설 〈燕丹子〉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허구와 과장이라고 하는 소설적 글쓰기 전략은 바로 이야기의 생명력과 직결된다.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갈 소설적 글쓰기의 전략은 인물에 관한 묘사이다. 〈燕丹子〉에는 태자 丹과 荊軻의 성격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史記》에 수록된 〈荊軻傳〉의 내용을 훨씬 뛰어 넘는다. 우선 소설 〈燕丹子〉에는 그 등장인물만 하더라도 燕太子 丹·秦王·太子傅 鞠武·夏扶·樊於期·秦武陽·高漸離·宋意 등 10여 명에 달하는데, 그 중 夏扶와 宋意 두 인물은 《戰國策》이나 《史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소설에는 흔히 역사서에 보이지 않는 인물까지 등장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국문학이론에서 말한 소설의 기능 중에 ‘史補’라는 개념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겠

다. 즉 소설가는 正史에서 다 기술하지 못한 인물이나 내용을 첨가하고 보충함으로써 역사가가 다 기술하고 표현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글쓰기의 전략을 택한 것이다.

역사를 보충하는 글쓰기로서의 소설은 인물 묘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戰國策》이나 《史記》에서는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 묘사에서 우리는 소설만이 지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荊軻傳〉에서는 태자 丹이 荊軻를 예우한 것을 다음처럼 절제되고 담박한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태자가 앞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 일을 맡아 달라고 강력하게 부탁한 뒤에야 형가는 겨우 허락하였다. 그래서 형가를 높여 상경으로 삼고 상등 관사에 머물게 하였다. 태자는 날마다 그곳으로 가서 태뢰의 음식을 대접하고 진기한 물건들을 주며, 수레와 말과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 형가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도록 하여 그 비위를 맞추어 주었다. (太子前頓首，固請毋讓，然後許諾。於是尊荊卿爲上卿，舍上舍。太子日造門下，供太牢，具異物，間進車騎美女，恣荊軻所欲，以順適其意。)9)

그런데 〈燕丹子〉에서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며칠 후에 (丹이) 형가와 동궁에 가서 연못가를 살펴보았다. 형가가 기왓장을 주워 개구리에게 던졌다. 태자가 사람을 시켜 금덩어리 쟁반을 받들어 오게 하자 형가가 그것으로 던졌고 던지기를 다하자 다시 내왔다. 형가가 말하기를 “태자님을 위해 황금을 아낀 것이 아닙니다. 팔이 아파서일 따름입니다.”라고 했다. 후에 다시 함께 천리마를 탔다. 형가가 말하기를 “천리마의 간이 맛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태자는 즉시 말을 죽여 간을 올렸다. 얼마 후 진나라 번 장군이 진나라에 득죄하자 진나라가 그를 급히 수배하니 와서 태자에게 귀의하였다. 태자는 그를 위해 화양대에서 술자리를 벌였다. 술자리 중에 태자가 거문고를 잘 타는 미인을 내놓았는데 형가가 말하기를 “거문고를 잘 타는구나” 하니 태자가 그녀를 올렸다. 형가가 말하기를 “단지 그 손을 좋아할 뿐입니다.”라고 하니 태자가 즉시 그 손을 잘라서 옥쟁반에 담아 받들어 올렸다. 태자는 일찍이 형가와 상을 같이하여 밥을 먹고 침대를 같이하여 잠을 잤다. (後日與軻之東宮，臨池而觀。軻拾瓦投龜。太子令人奉槃金，軻用抵，抵盡復進。軻曰：‘非爲太子愛金也，但臂痛耳。’後復共乘千里馬。軻曰：‘聞千里馬肝美。’太子卽殺馬進肝。暨樊將軍得罪於秦，

9) 같은 책, 《史記會注考證》, 1030쪽.

秦求之急，乃來歸太子，太子爲置酒華陽之臺。酒中，太子出美人能琴者。軻曰：‘好手！琴者。’太子卽進之。軻曰：‘但愛其手耳。’太子卽斷其手，盛以玉槃奉之。太子常與軻同案而食，同床而寢。)¹⁰⁾

위의 인용문에서 〈荊軻傳〉의 묘사는 역사서라는 테두리의 한계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적이고 함축적으로 묘사한 것에 반해 〈燕丹子〉에는 상당 부분 허구로 의심되는 내용이 첨가되어 독자들에게 둘의 관계를 과장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띄고 있음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荊軻의 인물 형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戰國策》이나 《史記》에서는 볼 수 없는 묘사들이 소설 〈燕丹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가령 荊軻가 秦으로 들어가기 전에 易水에서 “바람소리 쓸쓸하고 易水是 차갑구나. 대장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란 시를 남기자 高漸離가 축을 타며 그를 전송한다. 그런데 〈燕丹子〉에서는 형가가 마침내 길을 떠나자 夏扶가 수레 앞에서 스스로 목을 잘라 전송했다는 대목을 첨가하여 비장함을 더했다. 또 秦王을 암살하는 장면에서도 荊軻가 그의 잘못에 대해 나무라며 입장 혼계를 하는 장면과 秦王이 마지막으로 荊軻에게 무희의 거문고 연주를 부탁했고, 秦王은 무희의 노래 가사에서 힌트를 얻어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은 역사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소설의 인물 묘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하고, 줄거리를 발전시키며,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설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첨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燕丹子〉는 《戰國策》이나 《史記》의 〈荊軻傳〉와 비교해볼 때 특히 荊軻의 형상이 두드러지고, 그 줄거리 전개 또한 더욱 비장하여 傳奇적인 색채가 돋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明代 胡應麟은 이 작품을 가리켜 ‘역대 소설에 있어서 雜傳의 鼻祖’¹¹⁾라고 말한 것처럼 〈燕丹子〉는 후대의 역사소설과 전기소설 창작에 성공적인 선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 같은 책, 《燕丹子全譯》, 219-220쪽.

11) 胡應麟, 《少室山房筆叢》卷32〈四部正偽〉: “〈燕丹子〉三卷, 當是古今小說雜傳之祖.”(대만, 世界書局, 1980년), 419쪽.

IV. 역사와 소설의 경계 넘나들기

III장에서 필자는 ‘馬生角’ 관련 내용을 대표적 사례로 허구와 과장이라는 방법론과 역사서에는 없는 새로운 인물의 발굴과 입체적인 묘사라는 소설적 글쓰기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이야기를 지배하는 사상적 배경과 플롯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역사와 소설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으로서 그 서사적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우선 사마천이 《史記》를 저술할 때는 이미 적어도 두 종류의 이야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성립한다. 그 하나는 荊軻의 秦王 암살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戰國策》이나 《史記》처럼 허구적 내용이 최대한 배제된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 〈燕丹子〉에 기록된 서술처럼 역사적 사실에 허구와 과장이 상당 부분 가미된 이야기이다. 소설 〈燕丹子〉는 당연히 허구와 과장이라는 글쓰기 전략을 채택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이야기의 환경을 결정하는 사상적 배경과 플롯이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상적 배경으로 말하자면, 이 두 작품이 출현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漢代에는 유교이념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암살하고자 한 혁명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荊軻를 묘사함에 있어서 혁명의 성공여부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유교적 이념 가운데 하나인 ‘義’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사실에 근거하는 역사적 서사는 물론이고 과장과 허구에 의지하는 소설까지도 시대적 서사 양식의 한계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권에 있던 사회에서 탄생한 고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설화와 고소설의 인물은 환경을 지배하는 원리(신성성이나 유교이념)에 속박되어 있다. 이처럼 인물이 주체적 내면을 지니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원리에 얽매이게 되면 다음의 두 가지 서사적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인물이 자율성을 지니지 못한 채 플롯의 전개에 기능적으로 종속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인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주어진 세계관(전망)에 의거한 환경의 운동(플롯)으로 나타남으로써 ‘규범화된 플롯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¹²⁾

12) 나병철, 《소설의 이해》(서울, 文藝出版社, 2004년), 213-214쪽.

《史記》의 〈刺客列傳〉에 등장하는 다섯 사람 가운데 曹沫, 豫讓, 荊軻는 암살에 실패를 했고, 專諸와 聶政은 암살에 성공했다. 그러나 사마천이 주목하는 것은 암살의 성공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군에 대해 바쳤던 '義理'였다. 그래서 역사가의 입장에서 사마천은 〈刺客列傳〉의 말미에 다음처럼 기술하고 있다.

曹沫부터 荊軻에 이르기까지 다섯 사람은 이처럼 의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매우 분명하고 자신들의 뜻을 바꾸지도 않았으니, 그들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어찌 망령된 일이겠는가! (自曹沫至荊軻五人, 此其義或成, 或不成. 然其立意較然, 不欺其志. 名垂後世, 豈妄也哉!)¹³⁾

이처럼 역사가의 입장에서 사마천은 荊軻를 비롯해서 〈刺客列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죽음에 임해서도 자신들의 뜻을 바꾸지 않고 '義理'를 지켰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 이러한 사관의 입장과 기술 방식은 등장하는 인물의 비중 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유교적 사상이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 있는 宋代에 나온 司馬光의 《資治通鑑》과 江贊의 《通鑑節要》 기록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여전히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기도 했다. 가령 《資治通鑑》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通鑑節要》를 살펴보면 燕나라 태자 丹을 묘사한 부분은 《史記》나 《資治通鑑》의 내용과 비교할 때 秦王을 찔러 죽일 匕首를 준비한다는 내용 외에는 거의 생략되었고,¹⁴⁾ 화제의 중심은 대부분 荊軻에게 맞추어져 있다. 심지어 끝부분에서 태자 丹은 오히려 秦王의 복수를 두려워한 燕王에 의해 처형되었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약해졌다. 이처럼 후대로 갈수록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역사와 소설을 가릴 것 없이 荊軻로 설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이처럼 중심인물에 대한 설정과 비

13) 앞의 책, 《史記會注考證》, 1033쪽.

14) 金都鍊 편저, 《集註通鑑節要》: “太子豫求天下之利匕首, 使工以藥焯之, 以試人, 血濡縷, 人無不立死者.” (태자가 천하의 예리한 匕首를 미리 구하여 工人을 시켜 독약으로 담금질하게 해서 사람에게 시험해 보니, 피가 실오라기를 적실 만큼 조금만 나도 당장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년), 110쪽.

15) 주지하다시피 중국 장이모우 감독이 〈荊軻傳〉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 〈영웅〉에서 이연걸이 맡은 역할인 '無名'의 모티브가 바로 '荊軻'이다. 이 영화를 보면 자객의 역할을 맡은 주인공 이연걸의 형상이 주로 부각되었을 뿐 연태자 丹을 맡은 인물의 형상은 아예 빠졌다.

중은 이야기의 플롯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우리는 사실의 진실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소설 《삼국지》를 읽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曹操와 그를 둘러싼 이들은 ‘惡’의 집단이요, 반대로 劉備의 집단은 ‘善’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역사적 사실을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기록하는 이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획된 맥락을 통해 배열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마천이 《史記》를 저술하던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재구성에 있어서 ‘fact’ 그 자체에 기초하면서도 이야기의 구성, 즉 플롯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尚書》나 《國語》는 주로 실제로 있었던 대화의 기록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그 진행은 무미건조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戰國策》이나 《史記》가 출현할 즈음에 이르면 역사의 기술 방식이 戰國시기의 전쟁이나 유명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사건과 플롯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마천의 〈荊軻傳〉 비록 實錄이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플롯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서사적 글쓰기의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였던 것이며, 소설 〈燕丹子〉는 이를 소설적 글쓰기의 장점을

16) 曹操에 대한 인물형상이 본격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형성된 시기는 宋代이다. 蘇軾의 《東坡志林》卷一 〈塗巷小兒聽說三國語〉에 인용된 대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거리의 아이들은 어리석어서 그 집에서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는 바이다. (그래서) 돈을 좀 쥐어주며 옛날이야기를 해주는 전문 이야기꾼 앞에 가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듣게 한다. 《三國志演義》 이야기에 이르러서 유비가 패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 또 조조가 패하면 기뻐서 쾌재를 부른다.” (塗巷小兒薄劣, 其家所厭苦, 輒與錢, 令聚坐聽說古話. 至說三國事, 聞劉玄德敗, 顰蹙有出涕者, 聞曹操敗, 卽喜唱快.) 北宋의 대학자이자 문학가이며 정치가이기도 했던 소식의 저작에서 조조에 대한 주관적인 언급이 보이기 시작했고, 南宋 朱熹는 조조에게 ‘漢賊’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서 조조의 형상은 악의 화신으로 굳혀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다 많은 대중들의 뇌리 속에 조조의 이미지가 악인으로 굳어진 것은 明代에 《三國志》가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모순적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소설을 읽고 난 후 독자들의 뇌리 속에 더 강렬하게 남는 인물형상이 劉備보다는 曹操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찌 보면 曹操의 캐릭터를 나쁘게 묘사할수록 다른 인물들이 살아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국지》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장편 연의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 구성과 플롯이 더욱 정교하고 세련되어졌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살려 극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荊軻傳〉과 〈燕丹子〉는 ‘진시황 암살시도’라는 역사적 사건을 두고 ‘荊軻’를 중심 인물로 설정한 다음 그 이전의 역사서에서는 보기 드문 소설적 플롯을 적절하게 사용한 작품이다. 즉 이 두 작품은 모두 역사와 소설이라는 글쓰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의 장점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결과적으로 독자층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동시에 이야기의 생명력이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을 말하자면, 〈荊軻傳〉과 〈燕丹子〉 모두 ‘열에 일곱은 사실, 셋은 허구’(七實三虛)라는 중국 역사소설의 플롯을 성공적으로 연결해 나간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荊軻傳〉은 荊軻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일생을 ‘이야기화’ 역사기록이다. 상대적으로 소설 〈燕丹子〉는 비록 표제어가 ‘燕丹子’로 되어 있지만¹⁷⁾ 소설의 중심인물은 역시 荊軻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 주인공을 통해 ‘義理를 지킨 영웅의 개인사’를 세세하게 묘사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개인사는 사건의 개연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플롯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지, 단순히 사건 자체의 나열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인물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실 위주로만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의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마천의 〈荊軻傳〉과 소설 〈燕丹子〉가 문학사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두 서사는 모두 역사가 생동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건이 개연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구성에 신경을 썼고, 이 두 서사물의 출현 이후에는 역사로부터 잉태된 역사소설이 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두 서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플롯을 표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7) 〈燕丹子〉란 표제어는 후대에 정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燕丹子〉란 표제어는 중국 문헌 가운데서 《隋書經籍志》에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중국의 고대 소설에는 원래 제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후대에 정해진 경우가 많다. 〈燕丹子〉의 경우 明代 《永樂大典》에서 최초로 원문이 보이고, 그 시작 부분이 바로 “燕太子丹質於秦”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清代 《四庫全書》를 비롯한 이후의 문헌 목록에는 모두 〈燕丹子〉로 제목을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플롯	〈荊軻傳〉	〈燕丹子〉
①	△荊軻에 대한 인물 내력 소개 △蓋聶, 魯句踐, 高漸離, 田光과 인연 묘사	
②	△태자 丹이 秦나라에 인질로 잡혔다가 燕나라로 도망간 사연 소개	△태자 丹이 秦나라에 인질로 잡혔다가 燕나라로 도망간 사연 소개 △‘馬生角’의 허구 이야기 삽입
③	△丹이 太傅인 鞠武에게 복수의 계책을 논의 △秦 장군 樊於期 燕나라로 도망 △鞠武는 丹에게 田光을 소개함	△丹이 太傅인 鞠武에게 복수의 계책을 논의 △鞠武는 丹에게 田光을 소개함
④	△田光은 荊軻를 추천하고 자살함	△田光은 荊軻를 추천하고 자살함
⑤	△丹과 荊軻가 계책을 논의 △荊軻는 丹의 극진한 대우에 감동함	△丹과 荊軻가 계책을 논의 △荊軻는 丹의 극진한 대우에 감동함
⑥	△荊軻가 樊於期를 설득하여 자살하게 함 △丹은 천하제일의 匕首 준비	△荊軻가 樊於期를 설득하여 자살하게 함
⑦	△樊於期 장군의 머리와 督亢의 지도를 가지고 武陽과 함께 秦나라로 향함. △丹, 高漸離, 등이 易水에서 전송 △〈易水歌〉 삽입	△樊於期 장군의 머리와 督亢의 지도를 가지고 武陽과 함께 秦나라로 향함. △丹, 高漸離, 宋意 등이 易水에서 전송 △〈易水歌〉 삽입
⑧	△秦王 암살 시도와 실패 △실패 원인: 侍醫 夏無且가 던진 약주 머니	△秦王 암살 시도와 실패 △실패 원인: 秦王에게 거문고 연주 듣기를 허락함
⑨	△秦이 燕을 공격하자, 燕王이 丹을 죽임.	
⑩	△高漸離 재차 秦王 암살시도, 실패 △荊軻를 알아보지 못한 魯句踐의 탄식 △사마천의 평가	

표에서 정리한 이야기의 플롯은 이미 《戰國策》에도 비슷한 구조로 전개되어 있다. 〈荊軻傳〉과 〈燕丹子〉의 내용 가운데 서로 빠진 부분이 《戰國策》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戰國策》이 두 이야기보다 조금 앞서 이야기 자체의 플롯에 주의를 기울인 글쓰기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戰國策》에서는 ‘馬生角’이라든가 완전히 소설적 허구로 판단되는 부분이 최대한 빠져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 특히 〈燕丹子〉에는 소설적 과장과 허구가 대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중국 고대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易水歌〉

와 같은 시가의 삽입이라고 할 수 있다. 산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 속에 이처럼 운문이 삽입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효과로는 독자들에게 정서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운문의 특성상 특정 내용이 노래나 암송의 형식으로 훨씬 오래 전해지기 때문에 이야기의 생명력을 보다 더 길어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가의 삽입 또한 이야기의 구성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경우를 보면 서사시나 오페라처럼 운문 문학이 하나의 장르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중국에서는 소설 속에 운문이 습관처럼 삽입되는 전통이 꼭 이어졌다. 그것은 바로 삽입된 운문이 이야기의 플롯 사이에서 일정 정도 고정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이것은 중국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처럼 漢代에 이르러 역사든 소설이든 이야기 자체의 플롯에 신경을 쓰는 현상이 도드라지는데, 서경호는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이제 역사도 이야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가 없이는 역사가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 그런데 역사가 이야기되면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과거로부터 수집된 정보에는 서로背馳되는 것이 있었다. 같은 인물에 대한 상이한 정보, 심지어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평가를 담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어느 한쪽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기록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진실은 한 가지만 있을 뿐 두 개의 진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고 각각이 모두 진실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기록자는 이것을 어떻게든 절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똑같은 사실에 대한 '의도적 재배열'이 불가피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도적 재배열의 과정에서 이야기의 기술이 발휘되었고 또 새로운 이야기의 기술이 개발되기 했을 것이다.¹⁸⁾

역사가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는 실제 있었던 사건과 사실을 가감이 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마천은 역사적 기록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록과 더불어 의도적 재배열과 이야기의 기술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이는 이후 역사소설의 장을 여는 중요한 대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소설 〈燕丹子〉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역사기록으로부터 그

18) 서경호, 《중국소설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97쪽.

문체와 플롯 등 다양한 자양분을 공급받은 것이 분명하다. 특히 〈荊軻傳〉은 기존의 역사 서술과 비교할 때, 사실의 기록과 더불어 이야기의 소재가 될 만한 허구적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인해 소설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반면 〈燕丹子〉는 역사를 가공하여 역사소설이라는 새로운 글쓰기의 지평을 개척함으로써 중국소설사에서 결코 빼뜨릴 수 없는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V. 나가는 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중국소설사에서 역사와 소설이 서로 그 경계를 넘나들며 글쓰기를 하는 가운데 역사가와 소설가가 채택한 전략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荊軻傳〉과 〈燕丹子〉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고찰했다.

〈燕丹子〉는 戰國時代 燕나라 太子 丹이 秦나라에서 도망친 후, 秦王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荊軻라는 인물을 통해 암살을 시도한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당시 《戰國策》이나 《史記》에 실려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사마천은 당시에 떠돌던 이야기를 수집하고 《戰國策》과 같은 다른 역사서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史記》에 〈荊軻傳〉을 수록했다. 필자는 이 두 텍스트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역사가로서 사마천이 채택한 글쓰기 전략이다. 그 주된 방식은 〈荊軻傳〉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두에서 ‘馬生角’과 관련한 내용을 생략하고 끝 부분에 자신의 입을 통해 이 사실은 허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혀 놓은 것이다. 이것은 孔子 이래의 ‘述而不作’이라는 글쓰기 원칙을 지키면서 《史記》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당연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비록 과장되기는 했지만 ‘馬生角’의 이야기가 세간에서 떠돌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는데, 이 내용은 후대의 好事家뿐만 아니라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진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사마천이 ‘荊軻’를 중심인물로 설정하면서 이야기의 무게 중심은 지배 계층이라 할 수 있는 태자 ‘丹’이 아닌 일반 서민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마천의 글쓰기 전략은 후대의 역사와 소설의 발전에 핵심적인 자양분을 공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작자 미상의 〈燕丹子〉는 〈荊軻傳〉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역사와는 다른 소설로서의 글쓰기 전략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작품이다. 우선 〈荊軻傳〉과는 달리 소설의 시작을 태자 ‘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戰國策》과 유사한데 ‘荊軻’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丹’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당시 지배층인 독자층을 의식한 까닭이 아닐까 한다. 즉 시작 부분에서 기존의 역사 서술을 따라 해서 정통성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인물 형상의 묘사라든가 주제 의식을 ‘荊軻’에게 맞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역사서에서는 생략된 ‘馬生角’ 관련 내용을 역시 시작 부분에서 다루었는데, 이는 작가가 허구와 과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설 텍스트의 글쓰기에 충실해서 비록 허구의 외피를 입기는 했지만 역사와는 분명히 다른 역사소설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戰國策》이나 《史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소설 〈燕丹子〉에 의해서 후대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었고, 역사소설과 전기소설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역사와 소설의 경계에는 사실과 허구라는 이분법이 자리 잡고 있으나 〈燕丹子〉와 〈荊軻傳〉은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서사물로 둘 사이에는 그 경계가 미약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즉 이 두 서사가 荊軻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義’라는 시대적 사상배경과 틀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는 이야기의 ‘플롯’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글쓰기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산문 서사 속에 〈易水歌〉와 같은 운문을 사용하는 방식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중국소설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분류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燕丹子〉는 중국소설사에서 역사소설과 전기소설의 효시라고 불릴 만한 모범적인 글쓰기가 잘 실천된 작품이다. 그것은 《史記》에 수록된 〈荊軻傳〉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漢代에 들어서 역사와 소설이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시대적 서사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劉向 集錄,《戰國策》,台北,里仁書局,1990.
- 瀧川資言 著,《史記會注考證》,台北,天工書局,1993.
- 王天海 譯注,《燕丹子全譯》,貴州,貴州人民出版社,1997.
- 班固 撰,《漢書》,北京,中華書局,1997.
- 司馬光 編著,《資治通鑑》,北京,中華書局,1997.
- 應劭,《風俗通義》,上海,上海古籍,1990.
- 王充 著,黃暉 撰,《論衡校釋》,北京,中華書局,1996.
- 張華 著,祝鴻杰 譯注,《博物志全譯》,貴州,貴州人民出版社,1992.
- 馮夢龍,《東周列國志》,北京,人民文學出版社,1973.
- 胡應麟,《少室山房筆叢》,台北,世界書局,1980.
- 蘇軾,《東坡志林》,北京,中華書局,2002.
- 金都鍊 편저,《集註通鑑節要》,亞細亞文化社,1982.
- 나병철,《소설의 이해》,文藝出版社,2004.
- 가와이 코오조오 지음, 심경호 옮김,《중국의 자전문학》,소명출판,2002.
- 서경호,《중국소설사》,서울대학교 출판부,2004.
- 全寅初,《中國古代小說研究》,연세대학교 출판부,1985.
- 金聖日,〈燕丹子와 有關史書記錄과의 比較分析〉:《중국인문과학》제9집,1992.
- 申秉澈,〈史實과 虛構로 읽는 燕丹子〉:《中國小說論叢》제9집,2005.

【中文提要】

本論文對於主要以〈燕丹子〉與〈荊軻傳〉爲研究對象進行比較研究。關於燕太子丹招募荊軻刺秦的事實,最早見於《戰國策》與《史記》,而且〈燕丹子〉所載基本史實亦與此二書略同。但在具體內容和寫法上,三書又各有不同之處。《史記》爲荊軻立傳,故開頭部分約有四百餘字追述荊軻生平與入燕事,并交待了燕太子丹質於趙時與少年秦政相處歡好之事,但《戰國策》與〈燕丹子〉皆無此內容。〈燕丹子〉開頭寫燕太子逃歸燕時,有‘馬生角’等虛構之事,又是《戰國策》與《史記》以及宋代《自治通鑑》、《通鑑節要》等不史書皆不載其具體內容的,但《史記》的〈荊軻傳〉最後只提到‘馬生角’等事是誇張的。值得注意的是後來《論衡》、《博

物志》、《風俗通義》等文獻載‘馬生角’有關之事，明代馮夢龍的歷史小說《東周列國志》也載此事。由上可見，這說明歷史與小說之間的存在一定的境界。但從另外一個角度看，史書與小說的敘事方法又有相似之處，其主要的是故事的思想的背景和情節。本論文第四章通過〈荊軻傳〉和〈燕丹子〉比較分析，得知其中心思想是‘義’，還有中心人物是‘荊軻’，故事情節也是圍繞着他相似地進行的。

總而言之，歷史敘事和小說敘事共同吸收着對方的長處，互相影響敘事方法而發展和進化的。作為碩果僅存的一部漢代小說，〈燕丹子〉在藝術上的成就是一個引人注目的問題。過去一直認為中國小說的發展以先秦兩漢為準備時期，六朝時初具梗概。到了唐代傳奇方才進入成熟時期。〈燕丹子〉的藝術成就却使我們應該改變這一傳統的認識，並對它在中國小說發展史上的地位加以肯定。

【主題語】

燕丹子, 荊軻傳, 史記, 馬生角, 歷史, 小說

투고일: 2013. 10. 15 / 심사일: 2013.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3. 11. 10